

##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이 송 은<sup>1)</sup>

박 성 연<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 212명을 대상으로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에 따라 사회적인 양육행동, 가르치는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자료수집은 각 질문지 척도에 대한 어머니 보고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결과, 양육지식,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및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인식이 높고,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내적 귀인을 많이 하며, 양육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외적 귀인을 덜 하는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한편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인식이 높고,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이 낮은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또한 양육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내적 귀인을 덜 하는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양육행동 및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양육지식, 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양육행동, 영아기

---

\* 본 연구는 2011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E-mail : psy@ewha.ac.kr)

## I. 서론

영아기는 모든 발달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인간의 생애 중에서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맺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는 영아의 성격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영아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민감한 시기인 생후 첫 3년 동안은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유아기나 아동기 등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게 연구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진다(문혁준, 2005).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배경적 요인(예: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소득, 취업유무, 사회적인 지지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거나, 그와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다룬 것이 대부분(현정환, 2007)으로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 국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과 같은 자녀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최형성, 정옥분, 2000).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자녀의 발달을 종속변인으

로 보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양육에 관한 부모의 생각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인 내용들에 따라 부모의 행동이 달라진다는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내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아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나 양육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이나 양육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양육역할을 성공적으로 또는 잘못 수행한 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양육자로서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양육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관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는 행동의 원인을 인지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양육인지(parenting cogni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인지내용(parenting cognition)들은 주로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양육수행귀인(parenting attribution),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self-perception of parenting)으로, 자녀양육은 이러한 세 가지 인지적 측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다(DeWolff & van IJzendoor, 1997; MacDonald,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인지 내용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어 이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양육지식

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모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된다(Bornstein, 2002; Sigel & McGillicuddy-De-Lisi, 2002). 이러한 양육지식의 모든 측면은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부모가 어떠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양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줌으로써 아동발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Collins, Maccoby, Steinberg, Hetherington, Bornstein, 2000; Holden & Buck, 2002; Sigel & McGillicuddy-De-Lisi, 2002). 특히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영아기에는 양육지식이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일상의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녀를 발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한다. 이에 반해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잘못 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Azar, 2002). 최근 일본 부모에 대한 한 의식조사(오오타 모토코, 2011)에 의하면, 자녀양육에 소극적인 이유로 ‘육아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높았고, 이러한 양육지식 부족이 저출산의 새로운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어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양육인지의 또 다른 측면인 양육귀인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구미 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Gretarsson &

Gelfand, 1988; Himmelstein, Graham, & Weiner, 1991),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양육귀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귀인이론(Dix & Grusec, 1985)에 따르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내는 반응행동은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자녀의 행동이나 자신의 양육수행 결과에 대한 동기나 원인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급변하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처음 자녀를 갖게 되는 젊은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준비 없이 갑자기 부모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 심각하고 힘든 부모기로의 역할전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어려움은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자각이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우희정, 이숙, 1994).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능감, 양육 만족감,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Bornstein & Cote, 2003). 특히 부모가 양육에서 자신감이나 유능감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는 양육만족감은 물론 효과적인 자녀양육방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부모가 양육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양육자로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인식과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얻는 양육만족감은 바람직한

양육행동 및 아동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므로 (문혁준, 2001; Teti & Gelfand, 1991) 양육 유능감 및 만족감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본다. 이외에도 부모역할과 그 외 다른 역할 간에 느끼는 역할 균형감이나 부모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인 부모 역할투자는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거나 부모의 개인적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유능감과 양육만족감에 비해 부모 역할에 대한 투자와 역할 균형감은 비교적 연구가 되지 않은 주제이므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양육행동에는 특히 영아기의 경우 사회적인 양육(social exchange), 가르치는 양육(didactic),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limit setting)내용이 포함된다(Bornstein, 2002). Bornstein에 의하면, 사회적인 양육(social exchange)은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애정, 반응성, 및 상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양육행동은 영아의 사회적 적응과 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가르치는 양육(didactic)은 어머니가 여러 사물이나 물체, 사건에 대한 영아의 인식을 자극시키고 영아가 탐색하고, 모방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영아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다. 또한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limit setting)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규칙 준수 및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양육환경은 영아의 행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시되는 양육행동 내용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양육행동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아기에 특히 중요시되는 이러한 양육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양육인지에 대한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양육지식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내용을 포함한 박수연(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귀인에 관한 것이며,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DeWolff & van IJzendoor, 1997; MacDonald, 1992)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rnstein(2002)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사회적인 양육, 가르치는 양육,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12개

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남아: 110명, 여아: 102명) 212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평균 월령은 23개월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였다. 또한 어머니의 76%가 대학졸업 이상이었고, 어머니의 52.4%가 전업주부였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을 대체로 중류로 지각하였다.

## 2. 측정도구

###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NICHD(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I; Macphee, 1981)의 75문항 중 주관식 7문항을 제외한 68문항을 본 연구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KIDI는 양육행동에 관한 지식(12문항), 발달과정(17문항)에 관한 지식, 발달규준(28문항)에 관한 지식, 건강 및 안전(11문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 예로는 ‘아기가 잘 성장하기 위해 부모는 단지 아기를 먹이고 씻고 입히기만 하면 된다.’,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을 벌줄 때,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사탕을 주는 것은 괜찮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는 ‘한 아기에 대한 양육방법은 그 아기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기의 성격(개인의 특성)은 생후 6개월까지 형성되어 고정된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발달규준’에 관한 문항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2~3

개월 늦된 2세 아기는 발달이 지체된 것이다.’, ‘아기는 4개월 경 사물을 보고 소리 내어 웃기 시작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아기는 생후 첫 해 동안 몇 달마다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기에게 새로운 음식은 4~5일 간격으로 한번에 한 가지씩 주어야 한다.’ 등이 포함된다.

어머니들은 KIDI 문항 1번부터 48번까지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49번부터 68번까지는 ‘동의한다’, ‘더 어렸을 때도 할 수 있다’, ‘더 나이먹어야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cphee(1981)의 채점기준에 따라 정답에는 1점, 오답에는 -1점을 부과하고, ‘잘 모르겠다’에 표시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각 문항에 대해 얻어진 점수를 합산하여 각 하위 요인의 점수와 총점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양육수행귀인

어머니의 귀인에 관한 문항은 미국 NICHD(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The Parent Attributions Questionnaire(PAQ; Macphee, Seybold, & Fritz, 1989)를 이용하되, 본 연구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AQ는 일곱 가지 양육 상황을 각각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기술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 상황에는 옷 입히

기, 목록시키기, 달래기, 가르치기, 훈육시키기, 의사소통하기, 놀아주기의 일곱 가지 내용이 포함되며, 각 상황에서 어머니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유와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머니의 능력, 어머니의 노력, 어머니의 기분, 과제의 난이도 및 영아의 행동 등 다섯 가지 귀인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양육과 관련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관한 문항과 그 이유에 대한 예를 들면, ‘내가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그것은....’이라는 문항에 대해 ‘①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어머니의 능력), ②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과제의 난이도), ③ 우리 아이가 일을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영아의 행동), ④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다(어머니의 노력), ⑤ 내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어머니의 기분)’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한편 양육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문항의 예를 들면, ‘내가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을 때, 그것은....’이라는 문항에 대해 ‘① 내가 그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어머니의 능력), ②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과제의 난이도), ③ 우리 아이가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영아의 행동), ④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어머니의 노력), ⑤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다(어머니의 기분)’라는 이유가 제시된다. 각각의 이유에 대한 응답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의 (1)점부터 ‘아주 많이 이유가 된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각 이유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분석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한 평정 점수를 토대로 내적 귀인 점수와 외적 귀인 점수를 산출하였다. 즉 내적 귀인 점수는 어머니의 능력과 어머니의 노력에 대한 평정 점수의 평균으로, 외적 점수는 과제의 난이도와 아동의 행동에 대한 평정 점수의 평균으로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기분’은 불안정한 특성이기에(Weiner, 1979) 내적 귀인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주어진 일곱 가지 양육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한 경우, 다섯 가지 각 이유에 대해 Cronbach's  $\alpha$ 로 측정된 신뢰도는 .78 ~.87로 만족스러웠다. 또한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다섯 가지 각 이유에 대한 신뢰도 역시 .81 ~.89로 높게 나타났다.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미국 NICHD(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Macphee, Benson과 Bullock(1986)의 Self-perceptions of the Parental Role(SPPR)을 이용하되, 본 연구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PPR은 총 22문항으로 그 하위 요인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 양육만족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배우려고 하는지, 부모 되는 법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할 뿐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유

능감을 묻는 문항으로는 ‘부모들은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을 묻는 문항으로는 ‘자녀 때문에 결국 너무 많은 희생을 하게 된다고 느끼는지, 자녀 양육에서 희생보다 보상이 더 많다고 느끼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양육 만족감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자녀들은 대부분 짐처럼 느껴지는지, 자녀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의 주된 원천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어머니들의 응답방식으로는, 바람직한 응답을 택하게 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은 쉽고 자연스럽다’ 와 같이 대조적인 진술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응답자는 쌍을 이룬 두 가지 진술 중 자신과 일치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나는 매우 그렇다’와 ‘나는 그런 편이다’ 중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역할에 관한 부정적인 진술에 표시한 경우 ‘나는 매우 그렇다’는 1점, ‘나는 그런 편이다’는 2점을 부과하였고, 긍정적인 진술에 표시한 경우 ‘나는 그런 편이다’는 4점, ‘나는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과하였으며, 각 요인 별 점수는 해당 문항의 평균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만족감에 해당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21개의 문항이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부모역할에 대

한 인식의 Cronbach's  $\alpha$ 는 .58~.67로 나타났다.

### 양육행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NICHD(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에서 한국어로 번안한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 Bornstein et al., 1996)의 17문항을 본 연구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양육행동 즉, 사회적인 양육행동, 가르치는 양육행동, 한계설정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양육행동’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항 예로는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따뜻함과 관심의 표현을 제공한다.’를 들 수 있다. 한편, ‘가르치는 양육행동’은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항 예로는 ‘나는 내 아이에게 물건, 사건, 활동들의 이름, 내용, 특징을 설명해 주고, 책을 읽어주는 등 언어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나는 내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시간을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영아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며 주변 환경을 구조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항 예로는 ‘나는 내 아이에게 규칙을 엄수하는 것과 예의 바른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는 내 아이가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규율이나 통제, 확고부동함을 제공한다.’의 내용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르치는 양육행동의 1문항과 한계 설정 양육행동의 2문항을 제외한 총 14문항이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는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긍정적 양육유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행동의 Cronbach's  $\alpha$ 는 사회적인 양육행동 .81, 가르치는 양육행동 .72, 한계설정 양육행동 .60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및 광역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영유아교육기관을 통해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350부 중 250부를 회수하여 71%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38부)를 제외하고 총 21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초분석으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 test를

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기초분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인들, 즉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양육지식은 전체 68문항으로 점수의 가능범위는 -68점에서 68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 총점의 평균은 27.14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지식 각 영역별 점수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가능점수에 대한 실제점수의 비율인 정답률로 비교해보면, 양육행동 43%, 발달과정 41%, 발달규준 28%, 건강 및 안전 41%로 발달규준에 관한 지식이 양육지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표 1 참조).

한편 양육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귀인내용에 대해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표 1.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점수

| 변인    | 가능점수 범위        | 실제점수 범위        | M(SD)       | 정답률(%) |
|-------|----------------|----------------|-------------|--------|
| 양육행동  | -12.00 ~ 12.00 | -12.00 ~ 12.00 | 5.27(3.90)  | 43%    |
| 발달과정  | -17.00 ~ 17.00 | -7.00 ~ 15.00  | 7.01(4.12)  | 41%    |
| 발달규준  | -28.00 ~ 28.00 | -8.00 ~ 21.00  | 7.96(5.44)  | 28%    |
| 건강/안전 | -11.00 ~ 11.00 | -1.00 ~ 9.00   | 4.56(2.18)  | 41%    |
| 총점    | -68.00 ~ 68.00 | -12.00 ~ 53.00 | 27.14(9.58) |        |

표 2. 어머니의 양육수행귀인 점수

| 귀인 내용 |    |         | 점수범위        | M(SD)     |
|-------|----|---------|-------------|-----------|
| 성공    | 내적 | 어머니의 능력 | 1.00 ~ 4.71 | 3.06(.69) |
|       |    | 어머니의 노력 | 1.43 ~ 5.00 | 3.58(.76) |
|       | 외적 | 과제의 난이도 | 1.00 ~ 5.00 | 2.54(.71) |
|       |    | 영아의 행동  | 1.00 ~ 5.00 | 3.18(.79) |
| 실패    | 내적 | 어머니의 능력 | 1.00 ~ 5.00 | 2.88(.80) |
|       |    | 어머니의 노력 | 1.00 ~ 5.00 | 3.24(.91) |
|       | 외적 | 과제의 난이도 | 1.00 ~ 4.71 | 2.70(.78) |
|       |    | 영아의 행동  | 1.00 ~ 5.00 | 2.77(.83) |

일곱 가지 각 양육내용에 대한 귀인 점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그 일이 쉽거나 영아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가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어머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로 보는 내적 귀인을 많이 하고 있다.

한편, 양육수행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귀인 역시 외적 귀인보다 내적 귀인이 더 높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능력 보다는, 노력의 부족으로 보아 어머니가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적 귀인이 가장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수행과제가 어렵거나, 혹은 영아가 잘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세 가지 귀인 내용에 대해 대체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표 2 참조).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은 양육 만족감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역할투자 순이었다. 어머니로서 느끼는 유능감과 부모 역할과 그 외의 다른 역할 간에 느끼는 균형

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한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를 둔 어머니들은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의 점수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내용 | 점수범위        | M(SD)     |
|----------------|-------------|-----------|
| 역할투자           | 1.40 ~ 5.00 | 3.54(.52) |
| 유능감            | 2.00 ~ 4.67 | 2.93(.56) |
| 역할균형감          | 1.67 ~ 5.00 | 2.95(.58) |
| 만족감            | 1.75 ~ 5.00 | 3.86(.64) |
| 총점             | 2.29 ~ 4.33 | 3.26(.37) |

표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

| 양육행동      | 점수범위        | M(SD)     |
|-----------|-------------|-----------|
| 사회적인 양육행동 | 2.25 ~ 5.00 | 3.86(.54) |
| 가르치는 양육행동 | 1.25 ~ 5.00 | 3.43(.67) |
| 한계설정 양육행동 | 1.00 ~ 5.00 | 3.58(.82) |
| 총점        | 1.86 ~ 5.00 | 3.70(.51) |

며 그 다음으로 한계설정 양육행동, 가르치는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연구문제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회적인 양육행동, 가르치는 양육행동,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독립변인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25%), 중(50%), 하(25%) 집단으로 분류하여 앞의 세 양육행동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양육지식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양육행동, 발달과정, 발달규준, 건강 및 안전 지식 정도에 따라 가르치는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양육지식 중 양육행동 지식에서만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22$ ,  $df=2,209$ ,  $p<.05$ ).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특히 중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양육행동 지식이 높은 어머니들이 하위 집단 어머니들보다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표

5 참조).

한편 어머니의 양육수행 귀인에 따른 양육행동 중 첫째, 사회적인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의 내적 귀인정도에서 집단 간의 사회적인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3.94$ ,  $df=2,191$ ,  $p<.05$ ).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성공적으로 양육을 수행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 어머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외적 귀인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인 양육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09$ ,  $df=2,189$ ,  $p<.01$ ).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성공적으로 양육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 과제가 어렵다거나 영아의 행동이 까다로워서 잘못했다는 외적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덜 하였다(표 6 참조).

둘째, 어머니의 양육수행 귀인에 따른 가르치는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내적 귀인 정도에 따라서 집단 간의 유

표 5.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따른 사회적인 양육행동의 차이

| 변인             |   | N  | M    | SD  | F값    | Scheffé |
|----------------|---|----|------|-----|-------|---------|
| 양육<br>행동<br>지식 | 상 | 59 | 3.84 | .46 | 3.22* | AB      |
|                | 중 | 98 | 3.96 | .52 |       | A       |
|                | 하 | 55 | 3.73 | .62 |       | B       |

\* $p<.05$

표 6. 어머니의 양육수행귀인에 따른 사회적인 양육행동의 차이

| 귀인       |   | N   | M    | SD  | F값     | Scheffé |
|----------|---|-----|------|-----|--------|---------|
| 성공<br>내적 | 상 | 51  | 4.05 | .63 | 3.94*  | A       |
|          | 중 | 88  | 3.80 | .47 |        | B       |
|          | 하 | 55  | 3.81 | .51 |        | B       |
| 성공<br>외적 | 상 | 51  | 3.88 | .64 | .09    |         |
|          | 중 | 103 | 3.84 | .51 |        |         |
|          | 하 | 49  | 3.86 | .49 |        |         |
| 실패<br>내적 | 상 | 53  | 3.91 | .57 | 1.75   |         |
|          | 중 | 101 | 3.79 | .51 |        |         |
|          | 하 | 42  | 3.95 | .55 |        |         |
| 실패<br>외적 | 상 | 54  | 3.71 | .57 | 5.09** | B       |
|          | 중 | 97  | 3.89 | .47 |        | AB      |
|          | 하 | 41  | 4.05 | .59 |        | A       |

\* $p < .05$ , \*\* $p < .01$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4.00$ ,  $df=2,193$ ,  $p < .05$ ).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중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성공적으로 양육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덜 하였다(표 7 참조).

셋째, 어머니의 양육수행 귀인에 따른 한계 설정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

을 때, 내적 귀인정도에 따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4.21$ ,  $df=2,193$ ,  $p < .05$ ).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성공적으로 양육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 내적 귀인을 덜 하는 어머니들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표 8 참조).

마지막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각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인 양육행동과 가르치는 양육행동에 대해

표 7. 어머니의 양육수행귀인에 따른 가르치는 양육행동의 차이

| 귀인       |   | N   | M    | SD  | F값    | Scheffé |
|----------|---|-----|------|-----|-------|---------|
| 실패<br>내적 | 상 | 53  | 3.51 | .59 | 4.00* | AB      |
|          | 중 | 101 | 3.30 | .68 |       | B       |
|          | 하 | 42  | 3.61 | .68 |       | A       |

\* $p < .05$

표 8. 어머니의 양육수행귀인에 따른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차이

| 귀인       |   | N   | M    | SD  | F값    | Scheffé |
|----------|---|-----|------|-----|-------|---------|
| 실패<br>내적 | 상 | 53  | 3.53 | .84 | 4.21* | B       |
|          | 중 | 101 | 3.50 | .80 |       | B       |
|          | 하 | 42  | 3.91 | .73 |       | A       |

\* $p < .05$ 

서만 역할인식의 일부 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회적 행동은 역할투자( $F=8.06$ ,  $df=2,209$ ,  $p < .001$ ) 및 유능감( $F=5.03$ ,  $df=2,179$ ,  $p < .01$ )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역할투자에서 상위 및 중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역할 투자를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유능감이 높은 상위 집단과 낮은 하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 어머니로서의 유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역할 균형감이나 만족감의 정도에 따른 사회적인 양육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참조).

한편, 가르치는 양육행동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 중 역할투자( $F=6.92$ ,  $df=2,209$ ,  $p < .01$ )와 역할 균형감( $F=3.18$ ,  $df=2,173$ ,  $p < .05$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역할투자 중간

표 9.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인 양육행동의 차이

| 변인        |   | N   | M    | SD  | F값      | Scheffé |
|-----------|---|-----|------|-----|---------|---------|
| 역할<br>투자  | 상 | 47  | 3.98 | .44 | 8.06*** | A       |
|           | 중 | 108 | 3.93 | .47 |         | A       |
|           | 하 | 57  | 3.62 | .65 |         | B       |
| 유능감       | 상 | 40  | 4.00 | .52 | 5.03**  | A       |
|           | 중 | 83  | 3.89 | .49 |         | AB      |
|           | 하 | 59  | 3.68 | .57 |         | B       |
| 역할<br>균형감 | 상 | 38  | 3.86 | .57 | 1.26    |         |
|           | 중 | 95  | 3.81 | .51 |         |         |
|           | 하 | 43  | 3.97 | .55 |         |         |
| 만족감       | 상 | 71  | 3.97 | .45 | 2.35    |         |
|           | 중 | 108 | 3.81 | .58 |         |         |
|           | 하 | 33  | 3.78 | .51 |         |         |

\*\* $p < .01$ , \*\*\* $p < .001$

표 10.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르치는 양육행동의 차이

| 변인        |   | N   | M    | SD  | F값     | Scheffé |
|-----------|---|-----|------|-----|--------|---------|
| 역할<br>투자  | 상 | 47  | 3.47 | .67 | 6.92** | AB      |
|           | 중 | 108 | 3.56 | .57 |        | A       |
|           | 하 | 57  | 3.16 | .75 |        | B       |
| 유능감       | 상 | 40  | 3.49 | .63 | .55    |         |
|           | 중 | 83  | 3.39 | .66 |        |         |
|           | 하 | 59  | 3.34 | .73 |        |         |
| 역할<br>균형감 | 상 | 38  | 3.34 | .68 | 3.18*  | B       |
|           | 중 | 95  | 3.38 | .65 |        | AB      |
|           | 하 | 43  | 3.66 | .68 |        | A       |
| 만족감       | 상 | 71  | 3.42 | .64 | .15    |         |
|           | 중 | 108 | 3.45 | .70 |        |         |
|           | 하 | 33  | 3.38 | .61 |        |         |

\* $p < .05$ , \*\* $p < .01$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로서의 역할투자를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역할 균형감에서는 특히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 역할과 그 외의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이 낮은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유능감이나 만족감의 정도에 따른 가르치는 양육행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참조).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2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어머니 212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지식, 양육수행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양육행동(사회적인, 가르치는, 한계설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첫째, 양육지식의 경우 총 점 68점 중 평균 27.1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능점수에 대한 실제점수의 비율인 정답률을 살펴보면 양육행동 43%, 발달과정 41%, 발달 기준 28%, 건강 및 안전 41%로 특히 발달기준에 관한 지식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 같은 낮은 양육지식은 박수연(2005)이 지적하였듯이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아직까지 양육 및 훈육, 부모자녀 관계의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영아를 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양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지식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발달규준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보아 언제 어떠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지 등에 대해 모르는 어머니들이 영아의 성장발달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함으로써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내용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원인을 그 일이 쉽거나 영아가 일을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보는 외적 귀인 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귀인하는 내적 귀인을 보다 많이 하였다. 특히 내적 귀인 중에서도 능력보다 노력 때문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역시, 외적 귀인보다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한편, 어머니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영아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수행 결과에 대해 외적 귀인보다 내적 귀인을 더 많이 하여, 양육수행 결과가 주어진 과제의 난이도나 영아가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와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모두에서 양육수행

결과에 대해 어머니들이 외적 귀인 보다는 내적 귀인을 더 많이 한다(박수연, 2005)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양육수행의 성패를 모두 어머니의 노력여하에 따른 결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자신에게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살펴보면 양육 만족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할투자에 대한 인식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수행을 통해 양육 만족감을 가장 높게 느끼는 한편 부모역할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신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이나 어머니로서의 유능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를 돌보는 어머니들이 양육역할 수행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불균형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불균형감이나 양육부담, 부모로서의 유능감 부족은 어머니들의 낮은 양육지식에 기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아기는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그에 따라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어머니의 일상생활은 부모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역할간의 균형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낄 것이며 부모자녀 관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많지 않기에 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영아를

둔 부모들을 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유도하거나 양육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머니의 역할 균형감이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영아기에 중요시되는 양육행동인 사회적인, 가르치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대체로 1~5점 범위 중 3.43에서 3.86범위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한계설정이나 가르치는 양육행동보다는 특히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사회적 교환이 다른 발달단계보다 영아기에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사회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애정, 반응성, 민감성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온화함과 애정 및 반응성은 영아의 사회적 적응과 인지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Bornstein, 2002) 본 연구대상인 영아기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영아의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계설정 행동이나 가르치는 양육행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두기 보다는 영아와의 일상적 관계나 상호작용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체 중심의 가르치는 양육을 더 많이 하는 서구와 달리, 영아를 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관계 중심적인 문화인 다른 동양권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양육을 많이 한다는 연구(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가르치는 양육행동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증가 한다(박성연 외, 2005)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상 영아의 평균 월령이 23개월로 비교적 어리다는 데 기인할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 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첫째,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이 높은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발달 지식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Larsen와 Juhasz (1986)의 연구나, 양육지식이 높을 때 발달연령 시기에 필요한 양육행동을 한다는 연구(김영주, 송연숙, 2007)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양육자의 지식이 많을수록 영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수행귀인 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모두, 어머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즉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수행 성공여부가 그 일의 난이도에 따라 또는 영아가 잘 따라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외적 귀인을 하기 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능력 때문이거나 노력 때문이라는 내적 귀인을 할 때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더 책임감을 느끼며 이것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양육 관련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은 가르치는 양육행동이나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들이 양육행동을 잘 할 수 없는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여길 때 자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게 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선행연구(Bughental, Johnston, New, & Silvester, 1998)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게 되면 유능감과 자신감이 줄어들어 보다 소극적인 양육인 양육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우선, 어머니로서의 유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 유능감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 유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관련 영역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하는 반면 통제적인 행동은 덜 하여(안지영, 2001) 유능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우희정·이숙, 1994)결과나 부모 유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기질과 무관하게 민감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는 Teti와 Gelfand (1991)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또한 부모의 역할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은 어머니들이 사회적인 양육행동과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역할투자에 대한 인식 내용은 양육에 대한 책

을 많이 읽는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우려고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양육과 관련된 지식을 끊임없이 접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들, 자신이 부모역할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양육행동이나 가르치는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역할과 그 외의 다른 역할 간에 느끼는 균형감이 낮은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설계상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사회적 행동이나 가르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할투자를 많이 한다고 지각하거나 역할 균형감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들이 양육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모 역할수행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내적인 귀인을 하며, 부모역할 유능감이 높은 경우,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많이 하는 경우 영아기에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표집대상과 횡단적 연구설계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나 인과적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자기 보고식 자료에 기초하였기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실제 양육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을 통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36개월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인지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행동에서의 양육인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또한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인지 내용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영아발달과 관련된 구체적 지식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참고문헌

- 김영주, 송연숙 (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열린 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문혁준 (2005). 자녀양육의 최근 연구 동향 및 과제. 2005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M. H. (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 박수연 (2005). 영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오타 모토코 (2011). 더 나은 아동기를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우희정, 이 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3-90.
- 최형성, 정옥분 (2000).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6.
-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Azar, S. T. (2002). Parenting and child maltreatment.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vol. 3, pp.361-388).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rnstein, M. H. (2002). *Handbook of parenting*(2nd ed.). Mahwah, N. J.: Erlbaum.
- Bornstein, M. H., & Cote, L. R. (2003). Cultural and parenting cognitions in acculturating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3), 350-373.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Galperin, C.,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347-367.
- Bughental, D. B., Johnston, C., New, M., & Silvester, J. (1998). Measuring parental attribu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459-480.
- Collins, W. A., Maccoby, E.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M., & Bornstein, M. H.

- (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The case for nature and nurture. *American Psychologist*, 55, 218-232.
- DeWolff, M. S., & van IJzendoor,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tern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Dix, T. H.,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ren. In I. E. Siegel(Ed), *Parental Belief system: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201-233).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Gretar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64-269.
- Himelstein, S., Graham, S., & Weiner, B. (199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maternal belief about the importance of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2, 301-310.
- Holden, G. W., & Buck, M. J. (2002).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vol. 3, pp. 537-562).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rsen, J. J., & Juhasz, A. J.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MacDonald, K, B. (1992). Warmth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An evolutiona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3, 753-773.
- Macphee, D. (1981). *Manu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Macphee, D., Benson, J., & Bullock, D. (1986). *Influences on maternal self perception*.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ant Studies, Los Angeles, CA.
- Macphee, D., Seybold, J., & Fritz, J. (1989). *Parental attributions and self-esteem among mothers of delayed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Sigel, I, E., & McGillicuddy-De-Lisi, A. V. (2002). Parent beliefs are cognitions: The dynamic belief systems model. In Marc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vol. 3, pp.485-508).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 of infant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1 차원고접수 : 2012. 3. 23

수정원고접수 : 2012. 5. 7

최종게재결정 : 2012. 5. 30

## Parenting Knowledge, Attributions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ing Roles as They Relate to the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towards Their Infants

Lee, Song-Eun

Park, Seo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parenting cognition and their parenting behaviors. The subjects consisted of 212 mothers of 12- to 36-month-old infants, resident in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 series tests of ANOVA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s of data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1) mothers who had higher parenting knowledge, higher levels of internal attribution when undertaking successful child-caring practices, and who also possessed lower external attributions when they were unsuccessful in child-caring practice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a great many of social behaviors with their child; 2) mothers who had lower internal attribution levels when unsuccessful child-caring, had higher perceptions of parenting investment and lower levels of parenting balance, were also more likely to reveal didactic behaviors; 3) mothers who had lower levels of internal attributions when unsuccessful child-caring were more likely to exhibit limit setting behaviors. These result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arenting cognition in relation to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owards their infants.

*Key words : parenting knowledge, attribution, perception of parenting role, parenting behaviors, infancy*